



마장호수 위로 걸다

마장호수가 관광휴양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국내 최장 보도교(220m)인 흔들다리 위로 호수를 건널 수 있고
카누와 카약을 타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습니다.
호수변으로 조성된 둘레길(3.3km)과 캠핑장, 전망대도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과 지척인 파주 광탄면의 마장호수에서 자연 속 휴식과 즐거움을 함께 경험해 보세요.

파주 마장호수, 경기 북부 새 명소로 뜬다 수변 테마 '休 프로젝트' 완성...220m 흔들다리 조성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마장호수 일원이 체류형 수변 테마 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파주시는 2016년 8월부터 마장호수 일원에서 총 79억원을 들여 관광과 휴양을 접목한 수변 테마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마장호수 休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그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29일 정식 개장했다.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는 9만8천㎡ 규모로 관찰과 여가 등 2가지 테마로 꾸며졌다.

관찰 테마 공간으로 호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길이 220m, 폭 1.5m의 흔들다리는 지난해 말 조성됐다. 보도용 현수교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파주시는 2016년 9월 감악산 계곡 사이 150m를 잇는 출렁다리를 만들고 이번에 두 번째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흔들다리를 준공했다.

흔들다리는 몸무게 70kg 성인 1천280명이 한꺼번에 지나가도 될 정도로 설계됐다. 초속 30m의 강풍이나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

여기에 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이 15m짜리 전망대와 조망 데크(2곳)를 조성했다.

파주시는 호수 둘레길 총 4.5km 가운데 3.3km 구간에 산책로를 닦았다. 한 번에 48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었다.

수상체험과 오토캠핑을 하는 여가 공간에는 카누와 카약을 즐길 수 있게 계류장을 조성했다.

호수에서 수상 레포츠를 즐긴 뒤 캠핑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캠핑장(3천600㎡)도 마련했다.

이 밖에 2층 규모의 관리사무소(420㎡)와 수상레저 교육장, 카페, 화장실, 식수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마장호수는 철새가 찾는 낙조가 아름다운 청정호수다.

매년 국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머물고 즐길 만한 체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16년부터 수변 테마 체험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관광과 휴양을 접목한 수변 테마 체험 공간으로 마장호수가 제 모습을 찾으면서 관광객이 늘어 그동안 침체했던 광탄 지역 경제가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